

경륜 500승 금자탑 ‘홍석한의 인생극장’

신경마비 치료 위해 시작한 자전거 특선급서만 492승 ‘기념비적 기록’ 우승상금 모두 후배 위해 기부 훈훈

관리, 소형차만 타고 다닐 만큼 평소 겸손한 생활 등은 소속팀은 물론,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500승 달성까지 고비도 많았다

아마추어시절부터 줄곧 스프린터 1인자로 활약했지만 라이벌이자 대표팀 선배 조호성(117기)의 등장과 함께 2인자로 밀려나게 된다. 조호성이 은퇴한 뒤 노태경, 이육동으로 대표되는 세대교체, 4점대 이상의 고기어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며 2010년 10승으로 성적이 곤두박질쳤다.

사이클 입문 이후 줄곧 정상에서만 활약했지만 성적하락과 함께 ‘홍석한의 시대는 갔다’는 소리가 들리자 홍석한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때 엄청난 불면의 고통을 겪었다”고 가까운 사람들은 증언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2년 뒤인 2012년, 2013년 29승과 31승으로 재기에 성공 SS반에 복귀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전문가들은 순수 특선에서만 이룩한 홍석한 대기록을 프로 야구 원년 백인천의 4할 타율 해태시절 선동열의 시즌 0점대 방어율과 맞먹을 만큼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 비해 두터워진 선수층, 40세가 넘으면 유지하기 힘든 순발력, 늘 부상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이클 경기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500승 대기록은 홍석한의 천부적 자질이 뒤흔쳐졌었기에 가능한 기록이다.

현재 다승 2위는 362승의 장보규로 홍석한의 격차가 상당하다. 4월 마침내 화룡점정(畫龍點睛)한 뒤 ‘500승 달성 기념 시상식’에 참석한 홍석한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500승이란 목표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홍석한은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 전액을 “부상으로 고통 중인 동료 후배 선수들의 복지 및 치료비에 기부한다”고 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경륜경정 사업본부는 홍석한의 500승 달성에 발맞춰 경륜계 ‘명예의 전당’인 스피돔 3층 ‘경륜 홍보관’에 ‘홍석한 특별존’을 만들기로 했다.

홍석한도 자전거와 헬멧, 유니폼 등 소장품을 기부할 생각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통산 500승을 달성한 홍석한이 우승 화환과 트로피를 들고 있다. 탄실한 허벅지가 눈에 확 들어온다. 땀과 눈물 노력이 만든 허벅지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레전드 홍석한과 자전거와의 인연은?

초등학교 시절, 잘못 맞은 주사로 생긴 신경마비증세 때문이었다. 이후 재활을 위해 운동에 매진했고 자연스럽게 자전거와 인연을 맺었다. 단순히 치료가 목적이었던 자전거가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됐다.

중학교 진학 이후 본격적으로 사이클을 탄단 홍석한은 이후 두각을 나타냈다. 1994년 하로시마,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추발종목 2연패 비롯해 아시아 선수권 2회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사이클의 대두보로 성장했다.

●아마추어의 활약은 프로무대에서도 이어졌다

홍석한은 데뷔 이듬해인 2002년 그랑프리대회 챔피언에 오르며 각종 대상 경주를 독식했다. 상금 및 다승 타이틀까지 모조리 휩쓸었다. 모든 경륜선수들의 꿈인 그랑프리 3회 우승은 ‘경륜 레전드’조호성과 함께 현재 최다 타이 기록이다. 지금도 아마추어 지도자 및 현역 선수들에게 화자될 정도로 홍석한의 장점은 타고난 순발력이다. 운동선수로는 환갑의 나이지만 순간 스피드나 막판 결정력은 아직도 따라오지 못한 다. 운동밖에 모를 정도로 철저한 자기

‘미사리 여성시대’ 연 문안나-안지민-임태경

남자선수 위협하는 다승왕 후보들 ‘막내 기수’ 김인혜 후반기에만 5승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미사리 경정장의 뜨거운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올 시즌은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기량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져 대회차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자선수들이다. 현재 등록된 여자선수는 17명. 압도적으로 많은 남자선수들에게 밀려 비주류로 평가 받아왔지만 올해는 다르다. 대부분의 여자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숫자는 적지만 경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웬만한 남자강자들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바야흐로 미사리 여성시대다.

특히 문안나(3기·32세), 안지민(6기·31세), 임태경(10기·28세) 트리오에는 다승 부문에서 톱10 안에 랭크되면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강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 문안나, 안지민은 20승으로 다승 공동선두 이재학, 여선규에 2승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기세를 연말까지 유지하면 경쟁 최초종 여자선수가 다승왕을 차지하는 진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

여자선수 가운데 막내기수인 김인혜(12기)의 후반기 활약도 눈부시다. 후반기에만 5승을 거뒀다. 최근 6회차 동안 평균 착순점 7.13점으로 고공행진



문안나

안지민

임태경

중이다. 등급은 B1급이지만 성적만큼은 A1급 강자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다. 전반기 주선보류로 출전하지 못했던 반혜진(10기)도 후반기 복귀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연일 선전을 펼치고 있다. 29회차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주 자신의 올 시즌 첫 우승을 포함해 깔끔하게 2연승 입상을 성공시키며 후반기의 활약이 반짝이 아남을 증명했다.

2014년 그랑프리 준우승자 손지영의 복귀도 여자선수들의 활약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출산으로 1년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한때 여자 최강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선수답게 30회차에

서 복귀하자마자 2연승 입상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전문가들은 “올 시즌만큼 여자선수들이 고르게 좋은 활약을 펼쳤던 시즌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 편성으로 인빠지기 초창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법상 공합이 좋은 찌르기 입상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자선수들에 비해 몸무게가 가벼운 여자선수들이 유리하게 경주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으로 온라인 스타트 경주가 시행되면 체중의 이점을 얻어 직선에서 강점을 보이는 여자선수들이 더욱더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건 기자

광명 스피돔 현대미술작가 4인 기획전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광명스피돔 갤러리에서 현대미술작가 4인 기획전 ‘Enjoy Artistic Life!’를 10월16일까지 개최한다. 스피돔 갤러리는 레프조와 순수미술이 함께 숨쉬는 가족중심의 고품격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 문화, 예술,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Enjoy Artistic Life!’전시는 사진, 영상, 프로젝션 맵핑, 라인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 공간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이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로 현대미술의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권경용, 김지혜, 이정민, 이지연 등 4명의 작가가 선, 색채, 빛, 음악 등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경륜, 8일 추석 특별경주 개최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별 경륜을 개최한다. 8일 광명 스피돔에 각급별 팔도사나이 대격돌한다. 25개 훈련지별 훈련 참여도가 높고 훈련지를 대표하는 등급별 우수선수 각 1명씩 훈련매니저가 추천했고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기량 등을 고려해 경주에 적합한 선수 21명을 최종 선정했다. ▲13경주 특선급 출전선수=정종진(수도권), 전영규(충청권), 강진남(경상권), 이명현(전라권), 이강토(경상권), 이기호(충청권), 박성호(경상권) ▲10경주 우수급 출전선수=최민호(충청권), 박현명(수도권), 김철민(전라권), 김계현(경상권), 이규백(경상권), 고요한(수도권), 김영래(충청권) ▲4경주 선법급 출전선수= 함창선(충청권), 임형운(전라권), 김상인(경상권), 김성현(충청권), 김홍건(수도권), 오대환(경상권), 신용수(수도권) 등이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그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기증한 김보성(사진 왼쪽) 김보성의 ROAD FC에 데뷔 경기는 12월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 수입금 전액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된다. 김인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로드FC 데뷔 앞둔 김보성 ‘의리의 삭발’

12월10일 데뷔 앞두고 모발 기부 로드FC 수입금 전액기부 계약도

‘의리의 사나이’김보성(51)의 ROAD FC 데뷔전을 앞두고 삭발을 했다.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서다. 6일 서울 강남구 ROAD FC 압구정점에서 벌어진 기자회견에서 김보성은 모발기부

식을 하고, 12월10일 데뷔전을 앞둔 심정을 밝혔다. “(소아암 어린이들은) 수술을 앞두고 삭발을 해야 하는 데 외국은 가족이나 반 친구들이 따라서 같이 삭발을 한다. 우리도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동질감을 주기 위한 진심을 담아 삭발하는 일이 많았으면 하고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소아암 어린이들 위한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길이가 25cm 이상이어야 하고 염색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김보성은 이번 삭발을 위해 1년간 머리를 길러왔다.

나눔 프로젝트 다섯 번째 행사로 삭발식을 마친 뒤 김보성은 “아내가 이번 경기를 반대했지만 2번이나 무릎을 꿇고 허락을 받아냈다. 현재 몸무게는 크게 차이가 없다. 기량과 펀치력을 먼저 키우고 경기 3개월을 앞두고 감량하라고 선배들이 조언해 그대도 따르고 있다”고 했다. ROAD FC 정문홍 대표는 “77kg 웰터급에서 경기를 할 생각이다. 상대를 찾고 있다. 경험은 없는데 본인은 강한 상대를 원해 고민 중이다”고 했다.

연탄봉사는 2015년 1월15일에 진행했다. ROAD FC 파이터들과 정문홍 대표, 박상민 부대표, 김보성, 최홍만, 로드걸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사랑의 헌혈 행사는 2016년 3월 5일, 전통시장 응원회는 2016년 3월 12일, 영유아원 봉사는 2016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서 ROAD FC는 부대표인 가수 박상민이 전통시장에서 미니 콘서트를 열어 김보성과 함께 사람들을 응원했다. 영유아원 봉사에

서는 선수들이 격투 레크리에이션, 물품 기부 등의 행사를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종건 기자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그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기증한 김보성(사진 왼쪽) 김보성의 ROAD FC에 데뷔 경기는 12월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 수입금 전액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된다. 김인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로드 FC와 김보성 ‘의리의리한 계약’

ROAD FC와 김보성의 인연은 2015년 6월부터 시작됐다. 김보성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인연 덕분에 돼 평소 기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ROAD FC와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김보성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



지난해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스포츠7330봉사단.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캄보디아에 생활체육 전하러 왔어요”

7330 봉사단 태권도 등 재능 기부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6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및 시엠릴 일대에서 체육 재능기부 해외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지난해 스포츠7330 봉사단 중 우수봉사자로 선정된 자원봉사자 17명과 태권도는 은퇴선수 1명 등 18명이 참가한다.

스포츠7330 봉사단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천지역에 위치한 홀트드림센터 지사의 도움을 받아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탁견, 줄넘기 등 각종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지원 사업과 연계해 태권도는 은퇴선수를 캄보디아 시엠릴

지역 다일공동체에 파견해 태권도 시범을 보인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의 ‘지구촌 태권도부 낙취입기 운동’ 사업과 연계하여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도복 160벌을 기증하는 한편 축구공, 농구공, 축구공 등 운동용품과 학용품, 생활품 등을 현지 학생들을 위해 기부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예정이다.

이번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17명은 대학생 및 일반 동호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우수봉사자들로 지난 1년 간 국내 스포츠 7330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바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올해에도 스포츠 7330 봉사단 300명을 모집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rsnbi@donga.com